

» 제7회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

□ 표준(Standards)이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소비자의 안전·건강·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가고 있어,

□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기술표준을 널리 알리고 생활표준 체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표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3일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제 7회 표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날 표준화에 공적이 큰 기업·단체에 표준화 대상을 수여하고 유공자표창과 우수논문상도 시상

○ 국가표준화 대상에 한국도자기(주), 품질혁신부문 KS인증대상에 유진기업(주) 등 10개 기업·단체가 부문별 표준화대상과 KS인증대상을 수상

○ 표준화전담부서를 신설하고 MPEG 등 국제표준화를 선도한 삼성전자(주) 김철진 전무 등 29명이 동탑산업훈장 등 수상

○ 표준화 우수논문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일반부와 학생부 12명이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음

□ 표준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다양한 표준주

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21세기 표준강국 실현을 위한 단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 금년 중에 문화재청에 度量衡문화재(길이, 질량, 부피)로 처음 등록되는 되, 말, 직각자 등 331점에 대한 “계량표준 100년 문화재 전시회”

* 문화재 등록을 위한 예고 고시중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벼의 부피측정 등 옛날 계량장터 체험, 색채·시간·스피드 등 측정표준 체험 등 “어린이 계량측정표준 체험세상”

○ 3차원 인체치수 측정기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을 측정하여 그 자리에서 동일 연령 한국인 표준치수와 비교 체험이 가능한 “사이즈코리아 체험”

○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표준화협력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 “베트남공무원 표준연수”를 실시하고 “한·중·일 국제 크레인 심포지움” 등 15개 분야의 행사를 개최

□ 김종갑 산업자원부차관은 기념사에서 국가표준대표기관으로서 기술표준원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과 국가인증제도혁신추진계획을 마련하고,

* '06. 5.18.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표준심의회 심의 확정

○ 지난 8월부터 19개 부처와 공동으로 국가표준인증혁신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2010

년까지 국가표준총괄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대표인증마크 도입 등 인증통합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의 품질경영, 환경경영체제 등에서 앞으로 기업에 표준화 전담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표준과 특허·연구개발의 연계 등 표준경영체제를 도입토록 해 나갈 계획이며,

○ 선진국과의 FTA 등에 대비하여 서비스산업표준(회계, 금융, 물류 등)과 윤리경영 국제표준 등을 보급·확산해 나갈 계획임

□ 이와 더불어 에너지저소비, 지속가능발전 등 국가적 어젠더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국가계획에 표준을 접목해 나가고,

○ 표준인력양성, 국가표준망 확충,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 등 표준인프라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이버쇼핑물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물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기술표준원은, 사이버쇼핑물 안전관리 규정 정비,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불법제품 유통방지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정보

의 지속적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 소비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이버쇼핑물을 통한 물품 구입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으로 안전검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어 왔다.

(사이버쇼핑물 유통업체 및 유통량 현황)

연도	'01	'02	'03	'04	'05
업체 수	2,009	2,846	3,354	3,489	4,356
판매실적 (10억원)	3,347	6,030	7,055	7,768	10,675
소비자상담 건수	5,288	10,760	20,165	17,673	25,141

※ 자료 : 통계청 및 소보원 자료('06.3월)

* 사이버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5,288건('01) → 20,165건('03) → 25,141건('05)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우선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를 게재·홍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가 사이버쇼핑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일반매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소비자 등이 실시간으로 안전검사 등의 제품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위해정보 및 불법제품 유통정보의 신고·접수를 위한 정보관리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사이버쇼핑몰 사업자·관련단체·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쇼핑몰 제품안전관리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 19 동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자·관련단체·소비자가 참여하는 ‘사이버물안전관리협의회’(가칭)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등 세부추진방안이 논의되었고, 기술표준원과 사업자단체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체결, 사이버물 유통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및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기업-소비자-정부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소비자가 사이버쇼핑몰에서도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EP마크제품 공공기관 20% 이상 의무구매

신제품인증(NEP마크 : New Excellent Products) 신청시 신청제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인증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10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강화된 인증심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신청제품에 대해「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으로 개선·개량된 대체신기술이어야 NEP마크 신청이 가능하며,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아이디어 제품 등은 NEP마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NEP마크제품의 신뢰성을 한단계 높였다.

한편, 개정 법령에 따라 NEP마크를 획득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마크를 받은 제품은 지금보다 알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앞으로 400여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 NEP마크제품이 있는 경우,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업체의 매출액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보며,

기존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는 산업자원부장관 공
고로 운영됨에 따라 강제성이 없었으나, 이번에 의무구매
사항을 동 법률 개정(4. 28)과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반영
조치하여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됨

두 번째, NEP마크 획득업체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국민은행 등
시중 4개은행에서 신청 건당 최대 50억원의 저금리
기술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자금압박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NEP마크제품에 대해 구매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품질보장사업
(이행·보증·배상책임보험 등)을 추진하는데,
인증업체들은 기존 일반제품보다 낮은 보험요율
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이번 바뀌는 NEP마크
인증심사절차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
11월달부터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를 비롯
하여 관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관련 책자 및 홍보
물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NEP마크의 운영근거가 기존의
고시에서 법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증심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며, 앞으로 NEP마크의 신
뢰도가 질적으로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 고위공무원 TBT 연수



○ 베트남 표준품질원 소속 고위공무원 8명이
오는 10.30-11.3간 한국을 방문하여 기술표
준원에서 한국의 국가표준정책수립과 무역
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대응체계 구축 및 운용사례를 연수
하였다.

○ 이번 연수는 베트남정부가 오는 11월 WTO
가입을 앞두고 WTO의 TBT 대응 관련 국내
조직 구성 및 운용사례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지난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 참석한 한
국정부 대표단에게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
다.

○ 연수의 주요내용은 ▲국가표준정책 수립 및
집행 ▲무역상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구
축 및 운용 ▲기술규제대응 ▲민간업체의
TBT 대응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기술·표준분야 연수 훈련이 WTO에서 최근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베트남 공무원에 대한 표준 및 TBT분야 연수는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이번 연수과정에는 베트남 TBT국 부국장 등 기술규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어 이들과 형성된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대베트남 수출시 기술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시아 개도국 공무원 초청 표준화 연수



○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9일부터 20일까지 2주일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7개국 표준업무 담당공무원 12명을 초청, 서울 염곡동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국가표준정책개발 및 적합성평가능력 배양 등에 관한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의 협조를 받아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연수내용은 ▲국가표준화 전략 ▲국제표준화활동 ▲법정계량 및 측정 ▲적합성평가제도 ▲무역상기술표준(TBT) ▲환경기술규제 대응 ▲식스 시그마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와 토론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 과정에 참가한 연수생 대부분은 각국의 상공부, 산업부, 과기부 등에서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급 직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표준화정책을 배우는 것은 물론 각국의 표준화정책 발전방향과 참가국들간 국제표준화활동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 또한 연수생들은 표준과학연구소, 산업기술시험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시설을 견학하고, 남대문시장, 용인 민속촌, 경주 유적지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상과 고유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

○ 이번 ASEAN 공무원 초청 표준화 연수프로그램은 지난 2000년 ASEAN+3 정상회담시 김대중대통령께서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기술분야 교육훈련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58명의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 이 연수과정은 한국의 표준 및 인증제도 운

용·혁신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지난 4년간 이 연수과정을 수료한 10여개국 58명의 공무원들이 현재 각국의 표준화기관에서 주요 요직에서 일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원활한 표준협력이 기대된다.

» ISO 조선분야 분과위원회 의장 수입

□ ISO의 조선분야 기술위원회인 ISO/TC8(선박 및 해양기술) 소속의 SC8(선박구조물) 위원회에 울산대학교의 김정제 교수가, SC11(복합수송 및 연안운송) 위원회에는 인하대학교 이재욱 교수가 각각 국제의장으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ISO/TC8 국제총회(10.15~10.20)에서 선출되었다.

○ 이로써 한국은 조선분야에서 일본(3개분야)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의장 수입국이 되었으며, 조선강국인 한·중·일이 총12개 분야중 절반인 6개분야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 향후 관련 국제표준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제정시 한국 입장을 종전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ISO/TC8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보안 표준을 제정하고 있어, ISO 내에서도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 또한 ISO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하는 각종 규정들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IMO와 협력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있어, 의장직 수입 덕분에 국제규정의 대응력이 향상되어 국내 조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년 5월 IMO의 발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박 수출국들을 어렵게 만든 선박도장의 새로운 규제방법에 대한 규격을 금번 한국이 의장국이 된 SC8에서 개발할 예정이므로 향후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 IEC 적합성평가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

□ 2006. 9.25-29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80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우리나라 산업기술시험원(KTL)의 백수현 연구위원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EC의 적합성평가이사회(Conformity Assessment Board: CAB)에 이사로 선출되었다.

○ IEC내에는 표준정책업무를 다루는 정책이사회(Council Board : CB), 표준제·개정 관련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이사회(Standards Management Board : SMB)와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인증 절차 및 방법 등의 원칙을 정하는 적합성평가이사회

(CAB) 등 3개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음.

□ 현재 세계 모든 국가들이 WTO/TBT 규정 에 의거 전기전자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보 장 여부를 평가할 때 IEC/CAB(적합성평가 이사회)에서 정한 적합성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등 CAB의 중요 한 기능을 감안할 경우 이번 우리나라의 IEC 적합성평가 이사회 이사국 진출은 우리 나라의 인증제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 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인 전기전자, 반 도체, IT 제품 등의 전체 수출량 55%이상이 수출상대국으로부터 각종 인증(UL, CE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3년간 적합성평가 이사회 활동을 통해 국제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최상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할 수 있어 우리기업들이 수출시 겪고 있는 기 술장벽 문제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련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적합성평가이사회(CAB) 이사국 진출 로, IEC의 정책이사회(주덕영 前기술표준원 장, 06.1월부터 수행), 기술관리이사회(박 세광 경북대학교수, 06.1월부터 수행) 등 IEC 내 3대 핵심기구의 이사로 모두 우리나라 표준 전문가들이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기 전자분야 국제표준화계에서 우리나라 의 역할이 강화되고 우리 전기 전자산업의 위상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국제법정계량기구와 상호인정협정 체결

□ 2006.10.20일 부터 국내 계량기(저울) 수 출시 상대국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던 것을 국내 시험성적서로 통용되게 되었다.

○ 국내 계량기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통 용되게 된 것은 '06.10.18~20(3일간) 남 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국제법정계량 위원회(CIML)에서 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 인정협정(OIML-MAA)을 체결하고 저울 분야 상호신뢰선언서(DoMC)에 서명함으 로써 이번 서명에 참여한 일본, 프랑스, 러시 아, 중국, 호주 등 15개국에서 우리나라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용하게 되었다.

< 참고 >

- CIML : International Committee of Legal Metrology(국 제법정계량위원회)
- OIML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국제법정계량기구)
회원국 : 113국(정회원-59, 준회원-54), 사무국 : 파리
- MAA : Mutual Acceptance Arrangement
- DoMC : Declaration of Mutual Confidence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

- 발행국(7개국) : 자국 성적서 발행 및 타국 성적서 수용
한국 · 중국 · 프랑스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슬로바키아
- 수용국(6개국) : 자국 성적서는 발행치 않고, 타국 성적서는 수용
영국 · 러시아 · 캐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이스라엘 · 사우디 아라비아 · 불가리아 · 세르비아
- ※ 향후 참가국이 증기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호인정협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저울분야 시험기관인 한국기
기유화시험연구원에 대하여 해외 전문가로
하여금 시험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적합성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제법정계량기구로부터
인정 받음으로서 이번 상호인정협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 동 협정체결로 국내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됨으로써 국내 저울 생산업체가 수출시
수출상대국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시험비용
절감(해외 전당 1,500만원→국내 400만
원) 및 시험기간 단축(해외 9개월→국내 3
개월)으로 수출에 많은 편의를 제공받게 된
다.

< 참고 > 연도별 저울 수출실적

연 도	'04	'05	'06	'07
수출액 (백만불)	45	60	72	80

□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저울에 이어 수도미터,
주유기 등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품
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서비스품질혁신 촉진대회 개최

□ 기술표준원은 2006. 10. 25(수) 동 강당
에서 200여명의 서비스 관련 기업과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서비스품질
혁신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유공기업
과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
였다.

○ 금번에 개최된 서비스품질혁신 촉진대회
는 성장과 고용면에서 우리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가장 큰 서비스산업에서도 제
조업과 마찬가지로 품질에 의한 경쟁력 제
고를 도모하고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
최하였다.

* '05년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GDP 비중과 고용비중은
각각 56.3%, 66.5%로 OECD평균('03년) 66.8%, 68.6%
보다 낮은 수준

○ 정부포상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500여개 기업과
이와 관련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
신청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
사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 이어서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서창적 교수의 '서비스품질 혁신 전략'에 대한 발표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교보생명보험(주),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주), (주)에이택의 서비스품질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 기술표준원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이차, 택배, 장례식장, 봉안당 등 22개분야 55종의 서비스 표준화 규격을 개발하였다.

○ 지하철, 장애인 등 약 300개의 공공안내 그림표지를 표준화 하였고 이들 규격 중 15개 안전표지를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음

○ 앞으로도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화를 확대할 계획임

□ 서비스품질혁신 촉진대회는 서비스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유일의 포상제도로 서비스산업의 경쟁 촉진과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할 서비스산업 육성의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서비스품질의 '차별화와 고급화'에 의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ISO SW공학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 최근 국제적으로 IT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품질시스템으로 부각되고 있는 ISO 20000 등 SW공학 10개 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회의가 미국 등 20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ISO 20000 : IT서비스관리(IT Service Management) 체계 국제표준으로 IT서비스 조직의 요구사항 및 실행 지침을 정의한 규격

※ IT업계의 ISO 20000 도입은 고객에게 세계적 수준의 IT서비스 제공을 보장함과 더불어 서비스 유지관리절차 확립에 따른비용절감 효과를 기대

□ 전체 IT비용(기획, 설계, 구현, 시험, 유지관리 소요비용)중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IT서비스조직의 모범적 실행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ISO 20000은 국내 IT업계의 수익구조 개선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표준이다.


□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의장(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단형 교수)을 맡고 있는 WG4(SW 공학도구 및 요구사항) 및 SW개발 조직의 성숙성 평가 체계를 개

발하는 WG10(프로세스 평가) 등 10개 세부기술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SW공학 국제표준화 회의와 더불어 국제적 관심과 인증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SPICE(ISO 15504) 및 **ITSM(ISO 20000)분야에 대한 최신 표준기술의 국내 확산을 위하여 해외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세미나를 병행 개최하는 등

○ 우리나라 IT산업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SPICE :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and Capability dEtermination)

** ITSM :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제7회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